



## 어느 형사사건 이야기

최은순/변호사

**오**마진 그야말로 엽기적인 형사사건 피의자 한 명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7~8년 전 쯤에 자신의 정부와 짜고 폭력남편을 살해한 여인을 접견했을 때에 받았던 심박한 느낌과 달리 그는 너무나 평범한 인상이었다. 그에게는 도무지 강도살인이라는 죄명이 어울릴 것 같지 않았다.

살인의 동기가 궁금하여 다른 공범들과 피해자인 죽은 사람과의 관계를 캐물어 보아도 그가 말하는 정도로는 그것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하였다. 사람을 죽일만한 이유라는 것이 있지도 않겠지만, 도무지 적절한 동기찾기가 어려웠다. 그렇다면 그들은 단순히 게임으로 이것을 즐긴 것인가?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게임을 즐기면서 자라온 사이버세대나 소위 엔(N)세대도 아닌데 말이다. 사실, 7~8년 전 쯤의 폭력남편 살인사건의 경우만 해도 이렇게 변호를 맡는 것이 꺼려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왠지 쉽게 그들과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개운치 않고 무섭기도 했다.

주변사람들과 이러한 느낌에 관해 대화를 나눠 보았는데, 동료 변호사가 자신이 얼마 전에 변호했던 조선족들의 살인미수 사건 이야기를 해주었다. 거대한 포부를 갖고 한국에 온 30대의 조선족 남자 서너명이 칼과 낫을 들고 싸워 살인미수로 입건된 사건이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사소한 언쟁에서 싸움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싸움은 우리들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방향으로 흘러갔다. 상대방이 무기를 준비할지 모르니 이 쪽도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칼과 낫을 준비한 것이다. 어쩌면 그만한 정도의 언쟁을 가지고 그

렇게 싸움을 벌이면서 무기를 준비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조선족 피의자는 눈을 껌벅이면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를 눈치챈 동료 변호사가 중국에서는 모두들 다 그렇게 싸우냐고 했더니 그 조선족 피의자는 무덤덤하게 그렇다고 대답하더라.

이런 사례는 살인이라는 무거운 범죄행위로서 문제가 된 것이지만,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어떤 폭력적인 측면과 부패정도를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한다. 마치 우리가 조선족 피의자의 얘기를 듣고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지는 않을까?

결국, 나는 이 살인사건을 선입기로 하였다. 우리 뒤에 숨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다른 공범의 행위를 말리지 못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나 조직적인 불법행위 사건들이 이렇게라도 되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본다. 사람이 나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사람들은 또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뉘우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예상외로 관대하기도 하다.

어느 사회가 성숙한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잣대는 집단이 쉽게 잘못된 판단에 빠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마취상태가 풀려 잘못을 뉘우칠 때 이에 대한 처벌의 잣대와 그 기준이 명확한가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도 이러한 성숙한 사회가 빨리 오길 바라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똘똘하고 나도 이유없이 뛰지 않는 판단능력을 사회 구성원 각자가 고도로 훈련받아야 하고 이것이 습성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